

‘민주성지’ 이해 가지만 포화상태로 묻힐 자리 없는데...

광주시립묘지 ‘민주열사’ 줄이어 난감

(5·18 구묘역)

화물연대 故 박종태씨 20일 안장 계획

허기없이 매장 ... 무등묘원 해마다 ‘흥역’

광주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이 또 다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시립묘지 전체가 포화상태인데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인사들의 유족이나 관련 단체들이 ‘민주열사묘역’으로 불리는 제3묘역(5·18 구 묘역) 안장을 고집하며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택배기사들의 복직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1지회 소속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시신을 20일 광주로 옮겨와 제3묘역에 매장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전북 전주 출신 고(故) 이병렬씨의 매장 문제를 놓고 한차례 흥역을 치렀던 양측이 이번 일로 또 다시 충돌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16일 무등묘원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남 시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박 지회장 매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등은 “박 지회장의 시신을 시립묘지 내 민주열사묘역에 매장하겠다”고 말

했다. 하지만, 무등묘원 측은 묘지 조성공간이 남아 있지 않아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모두 4만45기(墓)를 수용할 수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묘지에는 현재 3만6천 기가 안장돼 있다. 나머지 4천45기는 예약이 완료된 상

태다. 특히 40명의 민주열사 등의 시신이 안장된 제 3묘역도 477기가 들 어차 포화상태다.

이 같이 양측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마찰이 예상된다. 무등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이씨의 유가족 등이 시립묘지 내 민주열사의 묘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자 부족한 묘지 조성 공간과 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 매장 대상)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이씨의 유족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열사묘역에 이씨의 시신을 매장하자 1주일 뒤 서울 민

의 시신을 매장하자 1주일 뒤 서울 민

의 시신을 매장하자 1주일 뒤 서울 민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리 없어요” 포화상태가 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묘지 제3묘역(민주열사묘역). 화물연대측이 광주 1지회 소속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시신을 오는 20일 이 곳에 매장할 예정이어서 관리주체인 (재)광주무등묘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원자 많고 공간은 없고 관리 어렵고...

5·18 구 묘역, 매장 대상 ‘민주열사’ 범위 뜨거운 논란

광주시립묘지 제3묘역(5·18 구 묘역)에 자리한 이른바 ‘민주열사묘역’의 매장 대상과 ‘민주열사’의 범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상(제14조 매장 대상) 공설 공동묘지인 광주시립묘지의 매장 대상은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망 전 거주를 목적으로

전(全) 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한 때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매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제3묘역에 매장된 시신은 모두 477기. 이중 ‘민주열사’의 묘는 40기다. 당초에는 80년 5·18항쟁 당시 산화했던 희생자들이 급조된 이 묘역에 묻혔다가 1997년 정부의 5·18묘역 성역화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지금은 고(故) 이한열·강경태씨 등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있으며, 일반시민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광주시민 외에 다른 지역 사망자도 매장돼 있는 점이다.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과 유족 간 자주 갈등을 빚는 이유다.

묘지 관리비도 문제다. 이 곳에 광주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망자가 묻힐 경우 관리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인적사항 등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현재 무등묘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묘는 모두 40기. 2002년 관련 조례 제정 후 묘지 관리비는 1년에 1만 원꼴이다. 40기가 지난 8년 간 체납한 관리비는 320만 원. 무등묘원 관계자는 “‘민주열사묘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지역 사망자도 이곳에 매장되길 바라는 유족들이 많은데, 공간도 없는데다 관리도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열사’의 인정기준과 범위도 논란거리다. 민주화운동 특성상 유공자라 할지라도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법률 제정을 통해 인정을 받는 데다 열사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어서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탓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형사 ‘면죄부’ 축구 코치

민사 책임 배상액 확대

불법행위 민사서 인정

법원이 지난 2003년 발생한 중학생 축구선수 의문사에 대해 축구부 코치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육당국과 코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민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6일 최모(사망 당시 14세)군의 유족이 전남도교육청과 도중학교 축구부 전 코치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심 판결에서 지급 명령받은 액수에 1천600만원씩을 더해 최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범위(50%)를 7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형사적으

로 입증되지 않은 강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코치인 강씨와 도교육청에 6천800여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정황으로 미뤄 강씨가 잠자는 최군을 깨워 속수 무사로 데려가 폭행하고, 최군은 폭행을 피하려고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중학교 축구선수였던 최군은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참가 차 제주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2003년 8월 22일 0시50분께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인 논란’ 의경 6년여 만에 장례

나주 경찰학대서 숨져

경찰학대 복무 중 숨진 한 의경의 사신이 유족 측의 타살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병동보관된 지 6년여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주의 경찰학대에서 근무하다 숨진 박모(사망 당시 20세) 일경의 유족들은 최근 박 일경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장례를 치렀다.

박 일경은 지난 2003년 3월 13일 경찰학대 숙소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타살의혹을 제기해 그동안 장례가 미뤄져 왔다.

특히 유족 측은 사고 직후 부대원들이 현장의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피를 닦은 천을 불태운 점 등을 강조

하며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또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부검을 실시해 자살로 결론지었으며, 사건을 재조사한 군 의문사진상위원회도 자살로 인정했으나 유족들은 장례를 거부했다.

이후 박 일경의 사신은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6년 넘게 보관돼 보관료가 하루에 5만원씩, 총 1억1천800여만원에 달했고, 유족으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장례식장측이 보관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결국 박 일경에 대한 장례가 6년3개월여 만에 치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831) 김장동



백운산서 1주일새 산삼 2뿌리 ‘횡재’

○~50대 남성이 광양 백운산에서 1주일새 30여년 된 산삼과 80여년 된 산삼 2뿌리를 잇따라 캐 화제.

○~16일 심마니 문유태(5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과 15일 광양시 백운산 자락



에서 약 30년과 80년 된 천종산삼(天種山蔘·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삼) 2뿌리를 반경 100m 이내에서 발견했다는 것.

○김씨는 “진귀한 난(蘭)을 캐는 꿈을 꾸 뒤 산을 찾았다가 하산하는 길에 산삼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위치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

○김씨는 또 “산삼 2뿌리를 자원식물연구가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상태가 양호하다는 감정을 받았다”며 “적절한 매입자가 나타난다면 산삼을 팔 계획”이라며 싱글빙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 자살 여고생 집단 괴롭힘 사실로

경찰수사, 일부 확인

‘화순의 한 여고생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화순경찰은 숨진 화순 모 고교 2년 K(17)양의 같은 반 친구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자살 동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양의 같은 반 친구인 A(17)양 등 4명을 불러 집단 따돌림과 폭행, 괴롭 갈취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를 벌여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학교내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 자신의 딸을 자살로 몰아넣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양의 어머니 이모(46)씨 등 유족들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K양이 숨지

기 몇 시간 전 언니에게 보낸 2만원이 필요하다.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과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보청기의 지존성

www.segibest.com

1588-8419 / 060-222-0100